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49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4. 26(금) 15:00~17:34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승정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 1. 성 원 보 고

### ○박종관 위원장

- 2019년 4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 10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8건은 공모사업의 추진계획과 관련된 심의결과 안건입니다.

이 안건들이 모두 중요합니다.

신규사업으로 2019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공모사업도 역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2019년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를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연예술창작산실과 관련해서 4건,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지원 결정과 국제예술교류지원 2차 공모심의 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안건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자율운영협약서 체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영주 본부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예, 위원 10인 중에서 8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 2. 개 회 선 언

### ○박종관 위원장

- 본부장의 성원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49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 ○박종관 위원장

- 오영주 본부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예,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 247차 회의에서는 5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2개 안건은 원안대로 그리고 다른 3개의 안건은 수정하여 의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서면으로 진행된 제 248차 회의에서는 2019년 소위원회 외부위원 위촉(안)을 최종 확정하는 1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4. 의 결 사 항

##### ○박종관 위원장

- 전차(前次) 회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결사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미리 보내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결사항이라는 것은 충분한 논의와 충분한 결정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니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의결안건으로 10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19년도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공모추진계획(안)입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안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공모추진계획입니다.

내용은 8페이지와 9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나와 있고 그 뒤의 10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부터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원이 확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추진계획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2)번을 보시면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예산은 총 10억입니다. 그 중에서 민간경상보조 지원금은 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최대 목적은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현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기본방향에 보시면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청년예술가를 일정비율 선정하여 지역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요. 신청일 기준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자를 최소 40%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신청건수 대비 선정비율 등을 고려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의 추진방향을 보시면 중간에 지원유형과 지원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들도 문학, 시각, 다원, 공연, 전통 등 분야별로 되어 있고요. 지원규모나 지

원내용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분야별 지원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청건수와 지원신청액을 고려해서 배분 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일단 오늘이 되면 다음 주 화요일부터 5월 20일까지 공모사업 안내 및 접수가 되고요. 5월 7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까지 심의를 추진하고 6월 말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7월에 결과를 발표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번의 추진 방식과 (6)번 지원신청자격 공통 조건에 보면 청년예술가가 만 39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수혜 이력이 없는 예술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7)번과 (8)번의 내용은 공통적인 공모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는 분야별로 사업설명이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린 공통된 부분 플러스 분야별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설명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이 안건은 안건번호 730호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희경 위원

-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지역 청년예술가들은 최소 40% 선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요. 5월 7일 공모사업 설명회는 서울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설명회 자체는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 ○이희경 위원

- 그러면 지역에 있는 청년예술가들에게는 아무래도.

####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저희가 안내는 메일링 등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 ○이희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문화재단 관계자들도 서울 회의 때 올라오도록 해서 간접적으로라도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순회사업의 경우 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광역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 사업의 취지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왜냐 하면 이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정 위원

- 나이를 39세로 하는데 어떤 근거로 청년을 39세로 합니까?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이 사업에 앞서서 국제교류와 순회사업도 청년예술가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정 위원

- 법적으로 청년이라고 하면 몇 살입니까?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35세도 있고 39세도 있습니다. 저희는 폭을 넓히는 의미로 39세를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김선출 감사

- 개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가령 공연이나 집단 등은 어떻게 합니까?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일단 대표해서 1명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선출 감사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기 논의된 내용에서 청년으로만 구성된 단체가 있을 때는 우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일단 모든 대상자가 청년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문예진흥기금 수혜 이력이 없는 예술가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거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청자는 이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예술가생애찾지원인데요. 이것은 만 39세 이하인데 ‘생애’. 누가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까? 위원들도 모르는 제목을 누가 지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사업이다보니 사업명 자체가 ‘청년예술가생애찾지원’ 이라고 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올리고 국회에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명칭으로 하라고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입니까?

○나종영 위원

- 몇 번 얘기를 한 것인데요.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예산이 나온 겁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런데 ‘생애’ 라는 것은 우리 같이 한평생을 살았으면 모르지만 39세 이하를 ‘생애’라고 하면..... 이것은 제목을 바꾸세요. 기획재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획재정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단어, 명칭, 용어 선택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이 부분은 당초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 2019년도 예산의 주요 정책이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등이 주요 예산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문화부에서 이 사업의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부에서 이 사업 명칭으로 해서 제안을 했고요. 기재부에서는 그 사업 명칭을 그대로 올렸고 정부(안)이 통과되고 국회까지 가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국회에서 통과가 되던 청와대에서 통과가 되던 간에 명칭 사용, 용어 사용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거리 창출’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청년을 39세 이하로 하면서 ‘생애’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꾸십시오.

○이승정 위원

- 방금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생애'를 많이 쓰네요. '생애최초주택자금구입', '생애첫건 강김진' 등 많이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명칭을 바꿀 수 있나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예, 사업내용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업명칭은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의견을 들어서 '청년예술가 첫 지원' 도 괜찮고요. '생애'를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큰 문제가 아니면 실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줘야죠.

○최창주 위원

- 그리고 장르 분야도 문제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함께 가야지 특수한 파트만 일거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위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이 사업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다른 문화재단에서 받은 것은 상관없습니다.

○김기봉 위원

- 그러면 '생애'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내 생애 태어나서 다른 데에서 받은 게 있는데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문화예술기금을 처음 받는 의미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먼저 안건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칭은 저희가 변경할 수 있죠?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예,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지금 그 배경은 전부 다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줘야 의결을 할 수 있는데요. 최창주 위원님 말씀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이라고 하는 용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느냐는 의미니까요. 지원사업의 내용이 잘 설명되고 내용이 잘 담길 수 있는 사업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이승정 위원

- 방금 김기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만 처음 받는 것이냐?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그렇습니다.

○이승정 위원

- 다른 문화재단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그렇습니다.

○이승정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지원을 안 할 수 있거든요.

○나종영 위원

- ‘생애’가 들어간 것은 한 사람의 일생에 한번만 주라는 것이고요. 생애가 빠지면 청년 예술가 누구라도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애’가 들어간 것입니다. 빠진다고 생각하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청년예술가 한 사람한테 주라는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승정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어색해도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청년예술가 첫 지원’ 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 사람을 첫 지원하는 게 되잖아요?

○김선출 감사

- 대안으로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문진금도 첫 지원 아십니까?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그렇습니다.

○김선출 감사

- 그러면 청년예술가와 생애첫지원 사이에 조그맣게 ‘문진금’을 넣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정확하게 알려줘야죠.

○박종관 위원장

- 참고로 유사한 사업들이 지역문화재단에서 이미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요. 다양한 이름들이 붙어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첫숏프로젝트’ 이런 것을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 이라고 하는 사업이 일자리와 연계해서 작년에 사업명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요. 논의를 조금 더 해서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조기숙 위원

- 최 위원님께서 안을 내주시죠.

○최창주 위원

- ‘생애’만 빼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하면 ‘청년예술가 첫 지원’ 이기 때문에 의미가 조금 달라진다는 나종영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생애’가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이 지원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생애’를 빼든 들어가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만약 볼 때 이것을 빼면 청년예술가 한 사람만 문화예술위원회가 첫 지원을 하는 게 된다니까요. 이미 이런 용어로 해서 다 논의하고 소위원회에서 올라왔을 것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눈을 감고 일을 하겠습니까? 왜냐 하면 금융 쪽에서도 그렇게 쓰고 주택 쪽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이승정 위원

- 아까 얘기했듯이 인터넷에 ‘생애’ 라는 말을 써보면 보건 쪽에 관련된 건강검진을 할 때도 쓰고 주택에도 씁니다.

○김선출 감사

- 이것은 그야말로 올해 받으면 내년에는 못 받는 것이잖아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예, 그렇습니다.

○이승정 위원

- 최창주 위원님, 저는 명칭은 상관없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꼭 남들이 쓴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에서 ‘생애’ 라고 하면 이런 상징성을 주기 위해

서 ‘생애’ 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이해는 되죠. 그래도 뭔가 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명칭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생애’를 넣을까요 빼까요?

○최창주 위원

- 그냥 넣으세요.

○강홍구 위원

- 그냥 넣어서 진행하죠.

○박종관 위원장

- 사업명칭과 관련된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홍구 위원

- 대부분 지난번에 논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습니다.

○이승정 위원

- 지난번에 보고를 했으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반대가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안건은 2019년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 계획(안)입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안건번호 731호 2019년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 계획(안)입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번 위원회 전체회의 때 원로연극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서 원로연극제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는 한국연극협회에서 진행을 하던 사업이지만 작년에 연극협회의 정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연극협회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행사에 대한 주관처를 공모하기로 결정된 사안입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료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로연극제는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017년과 2018년에는 (사)한국연극협회에서 지정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작년에 연극협회가 보조금 정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사업포기를 하였고, 작년 같은 경우 소극장협회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2019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연극협회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 주관처를 공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해 주셨습니다. 37페이지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사업이력과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2019년 제4회 원로연극제인데요. 현장에서 '원로'라는 것보다 좋은 명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줘서 실질적으로는 '늘푸른연극제'로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사업공모를 하게 되면 심의를 하고 선정되는 기간까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완결되더라도 정산 등 여러 가지 마무리할 일이 있어서 2020년 1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지난 위원회 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4억 1,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원로연극인이 참여하는 연극 작품을 가지고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3~4편 이상의 원로연극..... 배우가 되실 수 있고 연출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원로연극인이 참여하는 작품이 들어가고 최소 2~3주 이상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어떤 작품의 부대프로그램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대상은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법인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의결해 주시면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접수를 받고 보고를 드린 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작품을 제작하는데 협력적으로 무리가 없는 문화예술단체나 법인이고요. 최근 3년간 비슷한 행사나 프로그램 실적이 있는 것을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1,000만 원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원로연극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1~2명이 참여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심의위원 구성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이 될 것이고요. 일반 지원사업의 심의위원을 구성하듯이 3배수로 해서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쭙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의기준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안전번호 제 731호 2019년도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 계획(안)에 대해서 최혜주 부장의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본 안전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질문을 하겠습니다.  
원로연극제가 실질적으로 한국연극협회에 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는 것인가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연극협회는 올해 신청 자체를 못 합니다.

○나종영 위원

- 제 생각에 주관처는 1개를 선정하잖아요? 그런데 참여 작품이 3~4편으로 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개 주관처에 주지 말고 진짜 연극제처럼 3~4개 주관처를 줘서 3~4개 작품을 하도록..... 여러 극단이나 단체에서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요? 왜 1개 단체에 주면서 연극 3~4개를 하라는 것인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보니까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연극협회에 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보통 연극제처럼 3~4개 단체를 주관으로 하고 연극을 3~4개 하라고 하고요.

○박종관 위원장

- 나 위원님 말씀은 아마 공동 주관처나 여러 개의 주관처를 동시에 선정하면 안 되겠느냐?

○나종영 위원

- 그래야 경쟁을 하고 더 좋은 것이 나오죠.

○박종관 위원장

- 공연 쪽 위원님이 조기숙 위원님도 계시고 이희경 위원님도 계시니까 공연 쪽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조기숙 위원

- 저는 엉뚱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 연극은 사실 원로가 되도 끝까지 살아남고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솔직히 전통예술이나 무용이야말로 원로를 대접해 주고 기회를 줘야 해요. 그런데 무용과 전통은 없고 왜 연극만 있나요? 원로연극제가 아니라 원로예술제라고 해서 연극, 무용, 전통 등을 다 넣으면 좋지 않아요? 왜 연극만 특별대우를 해 주는 것인가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조기숙 위원

- 무용은 정말 나이가 65세나 66세가 넘으면 기회가 적고요. 전통도 적습니다. 연극은 끝까지 할 수가 있고 기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원로연극제가 아니라 원로예술제로 해서 전통.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조기숙 위원

- 만약에 3개 작품을 한다고 하면 1개씩 해도 되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공모처를 선정하니까 기획을 잘해서 공모할 팀만 선정하고 운영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원로예술가들을 연극, 전통예술, 무용 쪽을 골고루 넣고요.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3팀이 아니라 4~5 팀으로요.

○나종영 위원

-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마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최혜주 공연기반부장

- 나종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단체들이 같이 공동신청을 하는 것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조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르가 연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용이나 전통예술, 음악 등도 다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이 아니고 사업이 시작되지 않아서 그런데요. 국고사업으로 해서 원로예술인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장르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사업으로 진행돼서 무용도 있고 전통예술이나 음악도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체육기금사업이고 연도 중반에 확정되기 때문에 5월이나 6월에 확정되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다른 장르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정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요. 한국연극협회가 정산을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제제를 했는데요. 제제를 한 것이 있어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승정 위원

- 그러면 그 단체만 하나요. 우리가 협회에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에 대한 징계거든요. 왜냐 하면 이사장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하실 것 같아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규정상 포괄적인 제제는 할 수가 없고요. 다만 한국연극협회만 제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연극협회만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소극장협회 등으로 옮겨갔던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소속 직원이 다른 건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규정상이나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승정 위원

- 이것을 가지고는 다른 의견이 없고요. 우리가 보조금 부정사업이나 공모 등은 이 건만이 아니라 그 단체가 했다면..... 정산이 안 된 단체를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 작년에도 “결과를 보고 해라.” 그래서 뭔가 지표를 보여 달라고 했는데요. 한국연극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조금이 잘못된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에 명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의결에 의해서 앞으로 5년이면 5년 등의 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그것은 법적 제제대상이 되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저는 그냥 궁금한 질문인데요. 나중영 위원님께서 여러 팀이 같이 내면 공동으로 운영하면 안 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여러 단체들이 하는 공연을 운영하는 운영팀을 뽑는 것이잖아요? 각 개별을 뽑아놓으면 주관을 예술위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관처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관할만한 단체가 연극계에 많이 있습니까?

○조기숙 위원

- 많이 있어요.

○이희경 위원

- 예, 알겠습니다.

○나중영 위원

-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연극제라고 하면 여러 극단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극단이 들어오도록 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강홍구 위원

- 제 생각에는 여러 극단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하나의 극단이 할 리가 없죠.

○나종영 위원

-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아까 부장님이 보고를 드렸듯이 극단은 아마 3~4개 극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하나의 페스티벌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운영 주체를 뽑겠다는 말씀입니다.

○나종영 위원

- 궁금했던 사항이 그것이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일반적으로 컨소시엄을 할 경우에 우대하는 경우는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의결해야 합니다.

○최창주 위원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서 이것을 해결하느라 제가 피를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 두신 송 위원님께서 자기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것의 뒤처리를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이 4회제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서양연극입니다. 이것을 꼭 지원해야 하느냐? 그래서 방법이 뭐냐 하면, 매년 연도별로 장르를 순회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체육진흥기금이라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그러면 우리 위원회로 와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는 항상 택배회사가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6기 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하면 7기가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야죠. 우리 것도 아니고 전통적인 것도 아닌 것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장르별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르의 형평성 문제와 신청자격 제제의 일관성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시급하게 의결주문 내용 중에서 컨소시엄 방식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집중했으면 합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컨소시엄을 우대한다는 것보다는 한 단체가 주관처로 될 수도 있고, 자기의 능력이 부족하면 2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그냥 심의 때.

○박종관 위원장

- 제가 의견을 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견을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요. 제가 여쭙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논의한 내용이 컨소시엄 방식을 우대하라는 것은 아니시죠?

○이회경 위원

- 여기에는 그냥 신청 가능이라고만 되어 있네요.

○박종관 위원장

- 그냥 그런 방식으로 신청을 열어놓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뒤도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나종영 위원

- 여기를 읽어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작품, 참여연극인 등 능력 여하에 따라 어떤 내용의 콘텐츠로 할 것인가는 되어 있는데요. 제 말씀은 한 업체가 그것을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들어오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회경 위원

- 그리고 운영위원회 당연직으로 위원회 측 인사 1인 참여필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무처에서 들어가는 것이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보통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산이라든지 집행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의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로연극제 주관처 공모 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찬성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의가 없고 찬성을 표시해 주셨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제 732호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오페라발굴지원 공모 추진 계획(안)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제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드릴 3건의 사업공모 계획(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정시공모 때 이미 전체적인 내용(안)에 대해서 의결한 바는 있는데요.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소위원회나 위원님들 그리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지원단체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내용을 가다듬어 별도의 공모로 추진하면서 개선된 안으로 올렸습니다.

먼저 창작오페라발굴지원 공모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은 1억 원이고요. 이 사업은 2개년 다년간 지원사업으로써 1차년도에는 작곡가와 극작가가 오페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완성 할 수 있는 창작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고요. 2차년도에는..... 이번 공모계획에서 선정된 단체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실연심의를 거쳐서 제작비 지원까지 지원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1차년도 지원예산은 1억 원이고요. 참고로 2차년도 지원예산은 2019년도 기준으로 작년에 선정된 단체에 대해 쇼케이스를 다음 달에 할 예정인데요. 3억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1억 원에 대한 것이고요. 5개 팀을 선정할 계획이고 작곡가와 극작가가 공동으로 팀을 구성해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2,000만 원이고 세부적으로는 1,000만원씩 작곡가와 극작가들에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4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된 것은 당초 소극단 규모의 오페라 쪽은..... 대극장 부분은 거의 열악한 부분이고 중소극장을 중심으로 인큐베이팅을 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소극장에 한정되어 있던 것을 중극장까지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극장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팀당 지원금 부분이 다른 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을 10%로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했던 대로 실질적인 자부담이 없이 정액지원으로, 물론 정산은 합시다만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년도에 준해서 한 것이고요. 오페라는 이희경 위원님의 의견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상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경 위원

-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차년도 사업이잖아요? 5개 팀이 2,000만 원씩 1억 원을 받는데요. 올해는 중소 오페라에서 2팀에 3억 원의 예산이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 대극장 오페라는 형식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재연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중소 오페라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경우 보통 1팀을 선정하잖아요? 아마 3억이라는 예산은 대형 오페라를 염두에 두고 이런 예산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중소 오페라의 경우 1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소리를 현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면 2차년도에서 2팀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러니까 5월말 작년도에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 쇼케이스를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올해 3억 안에는 쇼케이스 지원계획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500만 원 정도고요. 2억에서 2억 5,000만 원정도가 사용된 셈인데요. 2개 팀 정도로 1억 5,0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요.

○이회경 위원

- 그러니까 3억을 1팀이 아니라 2팀으로?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2팀 정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회경 위원

- 이 안에 대한 얘기보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데 있어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담당을 하시는 부서에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페라창작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 작곡과도 틀려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경험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음악분야 심의풀에 전문가가 너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좋은 작품을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올해의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금합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정심의부장과 연락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심의위원풀을 재정비한 후에 2020년부터는 말씀하신 오페라 부분 등을 보강해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정심의부장이 와 있으니까요. 공정심의부장의 설명을 들어보죠. 이것은 오페라 영역

의 심의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하고 보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이희경 위원님과 연락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안풀이 없으면 다시 공고를 하고 심의풀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희경 위원님을 당연직으로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번 사업의 추진일정을 고려했을 때 일정이 여의치 않았습시다. 그리고 저희 규정상 조항이 있는데요. 만약 심의위원풀 자체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의 종사자를 풀로 데려올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것도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갖고 있는 풀 내에서 소화가 안 되는 공모사업심의와 관련해서는 페스트트랙을 의결 받고 만들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2020년 사업부터는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희경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일정상 어려운 것이 있고 원칙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번 사업까지는 진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승정 위원

- 이희경 위원님의 대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방금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자문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 심의풀이 한계가 있어요. 왜냐 하면 건축전을 하는데 미술은 많이 있는데 건축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분들에게 자문을 했는데 심의위원회풀에서는 한계가 있다. 운영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협회에서 9명 등 추천을 받아서 선정위원회를..... 당연직으로 누가 들어간다는 운영규정이 있더라고요. 정준화 부장이 오셨나요? 답변을 해 주세요. 그 경우와 이 경우는 다른 것인가요?

####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규정에 따로 선정위원회를 두는 규정을 상정해서 풀과는 관계없이 추천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심의규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풀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 공정심의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하겠습니다.

장르별로 심의위원풀의 편차는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희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음악 쪽 심의위원들의 인력풀의 허약함은 오랫동안 음악분야 위원이 공석이였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탓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라와 있는 732호 창작오페라발굴지원 공모 추진계획(안)은 의결해 주시고요. 새로운 문제인 심의위원풀의 허약

함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 등이 있는지에 대해 공정심의부장이 안을 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기숙 위원

- 좋습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준비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안을 충분히 살펴보셨을 텐데요. 공모 추진계획(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실 게 있으면 추가 의견을 주십시오. 의견이 없고 원안에 대해서 반대나 찬성의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이의가 없고 찬성을 했으므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제733호 안건입니다.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계속해서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실험활동지원 공모 추진계획(안)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의결이 되면 별도공모 형태로 사업을 공모할 예정입니다.  
자료 5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추진목적에 보시면 여러 창작산실의 단계별 제작지원 프로세스로 1단계에 해당하는 프리프로덕션 활동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각종 리서치나 창작 워크숍, 장르 간 협업 등 모든 창작활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중심보다는 창작준비 ‘과정’에 대한 지원이라고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지원을 하는 개별단체의 성과를 한데 모아서 차년도 초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개발표회를 거쳐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본격적인 제작 실현 전 단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공연예술 창작준비 활동 지

원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보시면 총예산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평균 1,500만 원 단가로 해서 26건이 지원되었고요. 단체별로 작가들이 많아서 최대 2,000만 원으로 해서 20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5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지원한 단체들에 대해서 최근에 합평회도 했었습니다. 단체의 의견들은 ‘괜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단지, 6월 달 성과공유를 발표하기 이전에 수시로 모여서 교류를 하고 중간점검을 하면서 피드백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54페이지 유 의사사항에 ‘중간점검회의’ 등을 명시해서 사전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작실험활동지원이니까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가 공모(안)으로 올라오고 바르게 우열을 가려서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자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집중해서 위원님들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희경 위원

- 이것은 심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분야별로 통합심의를 합니다.

○이희경 위원

- 좋은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자부담을 10% 이상 필수 책정하도록 했는데요. 자부담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지난번 소위 때도 같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핸들링을 할 수 없습니다. 기재부의 확고한 지침입니다. 예전에는 30% 이상이었는데요. 지금은 10% 이상으로 유연화를 시킨 면이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아까 창작산실 창작오페라에서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것은 일종의 아티스트피입니다. 음악작품 개발 등 창작활동에 대한 대가를 그 정도로 책정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김기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희경 위원**

- 왜냐 하면 이것이야 말로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비슷한 맥락에서,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과정’ 지원이나 ‘결과’ 지원의 맥락보다 국가보조금 관련해서는 정산을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산 의무에 대한 것 때문에 10% 자부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해당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의 자부담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과거에 이른바 국고지원 최소 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지금은 10%입니다만 과거에는 30%였던 그 부분이 없는 지원 등이 있지 않습니까? 없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래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완화되고 조금 더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을 김기봉 위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이럴 때는 상부에서부터 내려온 원칙이라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안 같은 것들을 함께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저희들이 의결하면 없앨 수 있습니까?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옛날에는 자부담을 안 뒀는데 자부담을 두게 된 이유가 기획재정부에서 “모든 민간보조금은 왜 자부담에 대한 원칙을 안 지켰느냐?”라는 지적사항부터 시작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넣고 싶어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의 원칙은 원래 없었는데 기획재정부와 국회에서 민간보조금 자부담에 대한 지적사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연장선상에서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신 겁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현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저희만 적용을 받는 부분은 아니고요. 모든 재단이나 기관들이 적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그것은 2020년 예산규정을 할 때 저희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문화부나 기재부에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것을 전체사업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청년 트랙이거나 이렇게 창작실험활동 등 역동적인 과정에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관해서만은 국고지원의 최소 여건 범위 밖으로 두어 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가 건의하고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노력할 때 제도가 개선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저희가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일단 원칙 부분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안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 사업 쪽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리를 해서 의결(안)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봉 위원

- 지역문화재단에서 자부담을 없애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지역문화재단도 다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지역문화재단 같은 경우 지방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최소 요건이 10%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가능한 자부담을 편성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창작활동 과정에 자부담 없이 그냥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자생력 부분에 있어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외부의 평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에 관해서 전부 다 자부담을 빼자는 말씀보다는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의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공모(안)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혹시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계속해서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자료 60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창작뮤지컬해외유통지원 공모 추진계획(안)입니다.

원래는 ‘해외공동제작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당초에는 간단하게 의결되었고 차후에 별도공모를 하겠다는 형식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뮤지컬 관련된 현장전문가에게 자문을 들은 결과 이 부분은..... ‘공동제작지원’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신청요건도 까다롭고, 특히 공동제작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 때문에 이미 경험이 있는 단체들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고 그런 부분의 제약이 너무 심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진출할 수 있는 준비과정,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 계약, 피칭 등 준비과정 지원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초 공고(안)에는 해외진출프로젝트 그리고 공동제작지원으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문호를 넓혀서 해외진출 과정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강하는 부분으로 보완한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예산은 3억 원인데요.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가는 산술적인 단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새로운 공모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소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은 “원작의 저작권이 해외에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국내의 창작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뮤지컬(라이선스)를 소지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만 한정할 필요가 있겠다. 단지,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지원은 아니고 쇼케이스 수준 이상 그리고 공연화 추진 작품에 대해서 준비과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해서 내용을 보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자부담이 50% 이상까지 설정된 부분이 있었고 너무 과도하기 때문에 이것도 공통적인 사항을 준용해서 10% 책정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기준도 단계별 지원에 따라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심의기준을 다시 세팅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보완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로 같음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지금 순수 국내 창작뮤지컬만 한다는 내용이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62페이지 가운데 신청자격에 있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62페이지 추진계획(안)에 보시면 지원신청자격에 ‘국내 창작뮤지컬 작품’ 이라고 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국내 창작뮤지컬이라는 것은 이미 외국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와서 하는 작품들은 배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저희가 ‘공연권(라이선스) 소지하고 있는 작품’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표현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표현 자체의 의지는 국내 창작뮤지컬에 한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명시하면 어떨까요?

**○이희경 위원**

- 이것은 모호할 것 같은데요. 요즘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작업들은 글로벌하게 하는데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국내에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작품에 한한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재는 상관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외국 공연의 경우에도 라이선스를 사오잖아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그것은 사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국내 창작.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국내에서 소유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곡해가 있으니까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얘기를 명기해 주시는 게 어떨겠어요?

○이희경 위원

- 그게 되게 모호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번에 ‘웃는 남자’는 창작자가 외국인이잖아요?  
그런 경우 라이선스는 여기가 갖고 있는데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뮤지컬지원 계획(안)은 말씨 하나까지 실무적으로 자문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요. 보완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하자면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말로 만들어서 넣으면 되잖아요? 지금 성안을 해 보시죠. 의결하기 전에 성안을 해야 되니까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해외 저작권(라이선스)을 제외한다.’ 라고 보완하겠습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심의 때 작품 이하 선정 자체를 심의위원에게 맡기면 안 될까 싶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제외함’ 이렇게요?

○이희경 위원

- 지금 장계환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추진계획(안)에 너무 디테일하게 규정하는 것

보다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걸러내는 게 어떠냐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신청할 때 오해가 없도록 공고를 하는 게 좋잖아요?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오해는 최대한 없어야 하는데요. 너무 모호할 수 있으니까요.

○이희경 위원

- 지금 원래 계획은 그런 것을 배제하시는 게 원칙인 것이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지금 ‘해외 저작권(라이선스)을 가진 작품을 제외함.’ 이라는 것을 괄호 속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최창주 위원

-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88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1987년도 미국에 100명을 데리고 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MR을 가지고 가서 창피를 당하고 왔지만요. 지금 우리가 작품을 할 때 셰익스피어 등을 각색해서 외국에 가지고 나가는 것도 많아요. 될 수 있으면 우리의 고전작품을 해외에 나가면 좋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어요. 국립무용단이 한 달 전에 외국에 나갔는데 국적불명의 무용을 하니까 그쪽의 전문가가 “너희 나라 것은 없어?”, “왜 우리나라 것을 따라하냐?”, “너희 것을 보여 달라.” 그래서 창피를 당하고 왔습니다. 뭔가 우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것은 국적이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논의가 없으시면 자료 62쪽의 사업추진계획(안) 지원신청자격에서 “공연권(라이선스)을 소지하고 있는 작품”에서 괄호 열고 “해외저작권, 라이선스를 가진 작품을 제외함”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넣어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해외저작권, 라이선스를 가진 작품을 제외함.”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여기까지가 지원공모(안)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결정의 건이니까 잠시 10분정도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3분 정회)

(16시 23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 2차년도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계속해서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공연예술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 2차년도 지원대상 결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월 11일에 전년도 6개 단체에 대해서 PT와 인터뷰 심의를 거쳐서 재확정 하는 부분이었고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으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6개 단체에 총예산이 6억 원인데요. 산술적으로 6개 단체이기 때문에 1개 단체당 평균 1억 원씩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과정을 거치고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해 주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70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창작곡 실연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창작곡 발굴과 실연에 대한 계획성 그리고 전년도 사업에 대한 관객개발이라든지 작곡가와 새로운 연주자들과의 협업 등 전체적인 운영과정에 대해 PT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의위원들의 채점을 거쳐서 순위별로 지원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평부분은 전체적인 심사내용에 대한 요약으로 적시한 부분이고요. 71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내년에 다시 1차년도 사업을 공고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 6년? 얼마나 됐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 정도 됐습니다.

○이희경 위원

- 한번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평가 이후 내년에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예산분배라든가 현장에서 참여했던 작곡가들의 어려움과 반영했으면 하는 개선점 등을 광범위하게 듣고 내년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부가적인 의견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일단 이 사업뿐만 아니라 문학 분야 등도 있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를 수립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70쪽과 71쪽에 지원심의 총평도 급하지만 간단히 스크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종영 위원

- 그런데 여기에는 지원에서 떨어진 단체명은 없습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2차년도 사업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요. 이것은 연속사업이니까요.

○이승정 위원

-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한 자료가 있어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일단 작년도 성과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제출 받아서 올해 사업계획서와 같이 PT와 인

터뷰심사 때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승정 위원

- 그러면 6개 단체에서 올해는 잘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취지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올해 됐으니 내년에도 도와주는 건가요? 아니면 평가의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지원금 배분의 목적보다는 현장 심사위원들의 컨설팅, 자문 개념으로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곡가와 신생 연주단체들을 공모하는 것도 있고요. 같이 교류, 협업하는 것을.

○이승정 위원

-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예술위가 많은 사업들을 지원하는데요. 지원은 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예술위에서 지원해서 국가대표로 베니스비엔날레에 나가는 팀들이 있어요. 그러면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를 하고 있는지? 국가에 공헌을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안했잖아요? 그래서 평가부도 만들고 했는데요. 우리는 수탁기관으로써 나온 대로 지원만 하고 말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한 취지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내년도 사업계획 설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니터링 평가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선정된 6건 중에 4건은 지원신청액과 지원예정액이 그대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1건은 2,000만 원, 그리고 다른 1건은 1,000만 원 가까이 지원신청액보다 지원예정액이 적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가 반영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희경 위원

- 순위대로 배정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여기의 연번은 순위는 아니고요. 순위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것이 있었고요. 전체적인 연간 예산계획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기봉 위원

- 평가가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평가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기봉 위원

- 쉽게 얘기해서 (4)번의 세종국악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지원신청액보다 지원예정액이 적은데요. 그것은 전년도 사업평가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다른 단체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다보니까, 전체 예산대비 평가결과를 반영하면서 후순위로 밀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균 1억을 기준으로 감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김선출 감사

- 참고로 사전결제모니터링을 하면서 69페이지 사업계획 심의기준이 2차년도인데요. 1차년도의 사업계획수립이 35%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이 계획이 반영되고 차년도인 올해도 이 비중이 높게 들어갔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심의제도 개선과 관련된 것이면 일단 의결을 해 놓고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감사님을 통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연도별로 구분해서 심사기준을 안내시키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도 아르크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결과입니다.

별첨해서 지원심의 결과를 나눠드렸는데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자료 74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아코문학창작기금 지원심의 결과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 2018년 정시공모 때 10월 1일부터 88일간 안내를 진행했구요. 지원신청 접수는 2018년 12월 5일부터 23일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신청 접수결과가 총 1,440건입니다. 그 중에서 시, 시조, 소설, 아동·청소년, 수필, 평론, 희곡 등 분야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등단 5년 이상 작가 또는 등단 5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6세 이상의 작가들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심의회에 추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청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차 심사와 2차 심사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차 심사는 지난 1월과 2월에 거쳐서 진행이 되었고요. 2차 심사는 3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1차와 2차의 심의위원 명단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1차의 경우 27명 그리고 2차의 경우 14명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 심의일정이 나와 있는데요. 심의는 각 분야별로 나눠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심의의 특이사항으로는 심의 회피가 있었는데요. 심의 회피는 표에 보시듯이 회피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격으로 처리된 것은 82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 시가 가장 많습니다. 41건입니다. 결격사유는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지 않았거나 저희가 요구한 작품의 건수 등이 접수되지 않았거나 필수 증빙자료가 접수되지 않은 건이 해당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보시면 1차 심의를 거쳐서 2차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것이 총 16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4건은 다시 2차 심사를 해서 80건으로 추려서 선정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첨자료로 선정된 내역을 보실 수 있고요. 각각 분야별로 시 32건, 시조 5건, 소설 16건, 수필 6건, 평론 2건, 희곡 2건, 동시와 동화를 합쳐서 17건으로 총 80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오늘 의결이 되면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발표를 하게 되고요. 결과발표의 내용은 심의 추진결과, 심의위원 명단, 지원대상자의 명단과 지원금 결정내역이 나가게 됩니다.

더불어 선정된 80명의 작가는 5월 중으로 전체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워크숍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차년도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선정된 작가들은 1,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포상금이라 정산 의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자세하게 보고를 들으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궁금하신 사항도 자유롭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작품 성과물은 안 내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작품은 저희가 보통 미발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1차 심사는 무기명으로 하거든요. 누가 어떤 작품을 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100% 미발표 작품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2차 심사에는 발간계획서와 기명발표작들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정산과 관련해서 작품집을 안 내나요?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작품은 저희가 2년 이내에 발간해서 저희한테 발간통보서와 함께 발간된 책을 제출하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나종영 위원

- 그것이 정산인 거죠.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그런 의미로 보면 정산입니다.

○나종영 위원

- 받고서 마는 게 아니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이 점을 확인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내지 않으면 돈을 환수해야 되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최창주 위원

- 이 장르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예술분야도 장르가 시, 시조, 소설, 장편, 단편, 수필, 동시, 동화 등 많은 분야가 장르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예술파트 같은 경우 전통문학도 풍물, 탈춤, 무속, 남사당..... 종합예술입니다. 그런데 전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음악

이나 무용 파트도 발레, 현대무용, 재즈, 탭댄스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학파트는 굉장히 분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분야도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김선출 감사

- 77페이지에 보시면 결원 발생 시 해당 예비지원대상자를 지원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때 결원이 발생합니까?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한 가지 남은 것은 서울문화재단이 저희와 동일한 사업유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선정결과를 크로스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할 경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도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2차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정준화 국제교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화 국제교류부장

- 안건번호 제 737호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 2차공모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회의자료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진행한 2차공모 심의는 레지던스사업이나 국제교류지원처럼 이미 지난 정시공모 때 1차로 선정된 사업들의 2차 공모가 있고요. 그것 외에 올해 신규 예산을 반영해서 신규로 진행한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과 청년관련 사업 2가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는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총 10일동안 진행했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장르별로 신청건수와 선정건수가 나오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인 남북사업과 청년사업 2가지에 대한 신청 및 선정건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신청건수는 714건이었고 이 중에서 20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심의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같음하도록 하고요. 지금 80페이지에는 장르별로 구분만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 안에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자료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심의를 진행했던 사업단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예술가해외레지던스지원과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Arko국제예술확산지원은 기존에 Pams나 창작산실에 지원되었던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Arko국제예술확산지원의 프로모션키트도 마찬가지로 선정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4가지 사업들은 기존 정기공모 때 1차 심의와 마찬가지로 각 장르별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밑에 표시된 사업들이 올해 신규로 반영된 사업들입니다.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의 경우 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르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통합심의로 진행했습니다. 심의는 장르별 심의와 통합 심의로 진행했습니다.

또 신규사업이었던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와 청년예술네트워크구축은 각 101건과 120건으로 총 221건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청년예술교류역량강화의 경우에는 신청 전수를 대상으로 PT심의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을 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걸러짐 없이 PT를 하는 식으로 진행해서 총 14건이 선정되었고 청년예술네트워크구축도 총 120건 중에 2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린 대로 각 사업의 선정결과와 심의총평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설명을 드린 대로 별첨자료가 있으니깐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별첨자료를 보면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은 총평이 없던데요. 누락이 된 것입니까?

**○정준화 국제교류부장**

- 확인을 못했는데 자료의 누락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누락하고 의결할 수는 없으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정준화 국제교류부장**

-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지도 않고 의결할 수는 없잖아요?

○정준화 국제교류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 주시죠.

○이희경 위원

- 심의위원 명단에서 오타 같은데요. 82페이지 음악부분에서 ‘박남연(기악)’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악이 아니라 성악입니다. 이것은 공개되는 것이잖아요?

○정준화 국제교류부장

- 예.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준화 국제교류부장

-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희경 위원

- 82쪽의 음악 심의위원 중에 세 번째에 있는 박남연 선생님은 성악가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올라올 때는 성악으로 올라왔는데요.

○정준화 국제교류부장

- 죄송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중에 발표할 때 문제가 되니까 수정하시죠.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안을 보지 않고 의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렇게 일단은 해 놓고 소위원회 구성안인 안건번호 738호 소위원회 구성 변경(안)을 먼저 논의하여 의결할까 합니다.

이 안건은 강병주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회의자료 89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47차 위원회 대면회의와 248차 서면회의에서 2019년도 소위원회 의

부위원 위촉(안)을 의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각 소위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하면서 위원 구성과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은 첫 번째 현장소통소위에서 내부위원 2명 중에 김혁수 위원님이 고사해서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및 국제교류소위에서 고명철 평론가께서 해촉 되고 오창은 위원님이 새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에서 김묘선, 박문희 위원님이 추가로 위촉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개최된 소위에서 위원 구성의 변경된 소위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함께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오늘 개최된 소위가 어디입니까?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혹시 예술정책·지원소위 아십니까?

○박종관 위원장

- 예술정책·지원소위가 오늘 했습니까?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아닙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어떤 소위죠?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정 위원

-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위원회 구성(안)이 있잖아요? 안에 보면 10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소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위원들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된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개 위원회에 우리가 1명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내부위원이요?

○이승정 위원

- 예.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이승정 위원

- 이런 부분은 잘못되어 있으니 보완책을 마련하고요. 이 원안은 통과를 하지만 보완책을 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정을 만들었는데 규정과 틀리면 안 되잖아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유나 설명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혁수 위원은 현장소통소위와 미래전략소위 모두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워지셨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명철 교수님은 지금 국내에 없으시다는 거죠?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교환교수로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묘선, 박문희 소위원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희경 위원

- 처음 저희가 한국예술공론화 소위원회에서 1명을 추천했었는데요. 추천한 분이 전통문화예술공연진흥재단으로 저희 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과 연결되어 있어서 참여하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으로 추천한 것이고요. 그리고 김묘선 선생님은 최창주 위원님이 추가로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약력이 나와 있으니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이제는 매우 중요한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안건번호 제 739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 자율운영협약 체결(안)을 의결토록 해야 합니다.  
역시 강병주 기획조정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회의자료 9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제 247차 위원회 대면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1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과거 예술지원에 대한 부당한 개입사태에 깊이 관여했던 과오를 성찰하는 자세에서 출발해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독립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율운영협약을 체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료 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안)의 주요 내용은 문체부와 예술위의 독립적,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동반자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것과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예술지원의 '팔 길이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별 임무와 책임, 기관 간 협력 방안 등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해서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추진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5월 아르코혁신FT 및 문체부 새예술정책에서 예술위와 문체부가 자율운영협약을 체결해서 계획을 발표할 것을 선포했고요. 이에 따라서 금년 1월에 자율운영협약서 초안을 내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이 초안을 가지고 3월 8일과 3월 14일에 1차오 2차에 걸쳐서 문체부와 예술위가 협의를 했고요. 이 협의안을 가지고 3월 20일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이 외부전문가 자문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것을 지난 3월 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고 이후 문체부와 예술위 직원 간 워크숍을 4월 9일에 개최해서 구체적으로 수정된 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협의(안)은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면 다음 주 목요일에 문체부장관과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협약(안)에 대해서 확정하는 일정으로 추진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자율운영협약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협약의 취지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협약의 목적을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동반자적 관계를 위한 문체부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 문단은 예술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97페이지의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문단은 양 기관의 업무처리 원칙에 관해서 명시했고 마지막 문단에는 협약의 효력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98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이 협약 본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한 부속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가 출범되고 블랙리스트 사태를 거치고 미투를 넘어서서 드디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실제 문서를 만드는 중요한 의결안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참고로 덧붙이면 저희 협약(안)은 어느 정도 실무선에서 문체부와 같이 교감이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문체부 내부에서는 장·차관 보고 및 결재 중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문구는 수정될 수가 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 정도에 장관과 위원님들 간에 간담회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추가로 건의하실 말씀이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월요일 오전까지 저희가 정리해서 문체부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간담회 협상에서 논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관 위원장

- 기획조정부장이 잘 설명을 했는데요. 2가지를 같이 논의하는 것입니다. 협약(안)을 검토하고 우리 위원회 안을 의결하는 안이 있고요. 5월 2일 새로 임명되신 장관님과 첫 대면을 겸하는 자리니까요. 그 자리에서 위원회 입장에서는 무엇을 건의하실 것인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율경영협약(안)과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정 위원

- 여기 내용은 동의를 하는데요. 앞전에 한번 예술위원회에 올린 내용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직표가 있어요. 조직표를 보면 예술정책과가 있습니다. 이 지점 주무관이 우리 담당하는 주무관이 맞죠? 그런데 그 분이 하는 일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도감독’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 말이 뭐냐 하면, ‘지도감독’은 생각하기 나쁩니다. 그런데 자율적인 협약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주무관이 하는 일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도감독’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기관 대 기관끼리 업무협조나..... 같은 용어인데요. 이 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몰라도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우리 기관을 생각하는 것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한번 협의해서 다음 위원회 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죠.

○강홍구 위원

- 저는 한 가지만 여쭙볼게요.

이런 정도의 협약서를 체결하면 협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조항이 부속서에 보면 문화예술기금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을 해야 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을 게을리 한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구속력 등이 있나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협약에 대해서 양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이 협약을 계속 존속시킨다는 것을 협약의 효력 규정에 넣고요. 그리고 구속력은 상위 법령에 위배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위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양 기관이 독립적,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자세한 사항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강홍구 위원

- 또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승정 위원이 지적을 했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국회의원들의 낙하산 지원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문체부에서 나설 수 있는 조항 비슷한 게 있습니까?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부속서 2조 3항을 보시면 ‘예술위의 업무처리 원칙에 관해서 지원사업 심의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심의 절차 및 결과에 특정한 이해관계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예술위원회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당한 이해관계나 간섭에 대해서는 이 협약의 부속서를 제시하면서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창주 위원

- 아까 위원님께서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해 달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세 번째 조항을 보면 ‘독립적으로 수행’ 이라고 나와 있어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공정하게 분배를 해야 하는데요. 저도 얘기를 했지만 외부에서 택배회사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법과 하위법이 있어요. 상위법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예술위원회의 임무는 우리들이 충분히 수행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우리 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닙니다. 다른 단체도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법, 자기 조직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마음이 편하죠. 상위법

에 의해서 참고자료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 본문의 97페이지 두 번째를 보시면 법령에 대해서 명시를 했는데요. ‘문체부와 예술위의 관계는 예술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정신과 관련 법령 하에서 유효하며,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라는 원칙적인 규정을 두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문장의 단어는 좋죠. 지금까지 우리가 회의를 했지만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그냥 문안 대로 가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나름대로 문체부에 표현을 해 줘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최 위원님과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결국 협약의 효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기봉 위원**

- 98쪽 문체부의 역할에서 (2)번에 보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한다.” 라고 재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4)번에 다시 “예술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술위와 관련된 예산, 평가, 인사 등 여러 행정적인 사항을 예술위와 공유·협의하여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예산 부분이 두 군데에 같이 있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2)번은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이고요. (4)번은 집행예산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봉 위원**

- (2)번은 기금의 문제고 (4)번은 수립예산의 문제라는 건가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산(안)편성과 집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기봉 위원**

- 여기에서 평가, 인사 등을 문체부가 예술위와 공유·협의하여 추진한다고 했는데 평가, 인사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술위의 인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문체부가 지금 인사권을 갖고 있는 예술위원회의 위원의 위촉이고요. 산하기관의 평가

에 대한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단순화된 조문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해석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많이 하시고 의미를 꼭 짚어보세요.

○송시경 예술간운영본부장

- 지금 국가재정법을 보면 기금 같은 경우 주무부처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고요. 평가도 문화예술진흥법을 보면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올해 역사적인 일들이 있었거든요. 올해 최초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이 예산을 짤 첫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율운영협약서에 명문화되어서 다루어지게 되면 정례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기봉 위원

- 저는 4번의 “예술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라고 한 부분을 ‘안정적’을 ‘자율적’으로 바꾸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99쪽을 보면 소통 방안에서 “문체부 예술정책과장은 주무부서장으로 예술위의 위원장·위원 및 사무처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라고 나와 있는데요. 문체부의 조직표를 보면 예술정책과에서 예술위원회의 업무는 담당을 하지만 예술위와 관련된 부분은 문학, 공연, 시각, 전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장은 정책관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직원들과 하는 것은 각 부서의 과장들과 얘기를 한다고 해도 위원장과 위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주무부서장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승정 위원

- 저도 김기봉 말씀에 모두 동의합니다. 기관의 차이인데요. 우리를 거쳐 가는 다른 기관도 있는데요. 김기봉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일단 예술정책관으로 바뀌서 수정(안)을 다시 보내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장관을 만날 때 우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자구를 수정해서 미리 협의하는 게 좋죠. 직급을 올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안정, 자율적으로’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영 위원

- 제 생각에 ‘자율.’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가운데 점으로 해서 ‘안정·자율적으로’ 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정도 필요하거든요.  
지금 급하게 보셨지만 문장의 핵심을 많이 짚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 제가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요. 위원장 결제가 3,000억 정도라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재부의 예산이고 문체부의 예산입니다. 물론 연말에 결산을 받지만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된다면 위원장이 제대로 산출근거를 결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요. 명색이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생색을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조직에서는 얼마를 받는지도 몰라요. 또 주는데도 우리 예술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 받는다.”, “이것은 문체부에서 받는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돈을 우리한테서 나가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뭐를 도와 줬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출근거를 따지려고 하니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향유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산출근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술위원회가 제대로..... 이런 회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명목상 예산운영자율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겼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조항에 명시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승정 위원

- 제가 작년에 회의를 하면서 부정수급이나 우리가 봤을 때 명백한 고발감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고발을 하자.” 라고 했더니 우리가 자체적으로 고발을 할 수가 없고 문체부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 법이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에서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의 부정을 봤는데 의견만 줄 수밖에 없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보조금법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저희는 처분능력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정수급이 의심 되면 저희가 조사해서 “이것은 부정수급이다.”라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정도과 종류는 부정수급위원회를 문체부에서 열어서 처분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프로세스는 기재부 같은 곳에서 e나라도움 등으로 집행을 하면서 부정수급의 징후가 있다고 알려 주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거나 부정수급 징후가 있다고 하면 수사가

판에 저희가 의뢰를 한다거나,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이것은 부정수급에 해당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사실을 문체부 쪽에 알려주면 부정수급위원회에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승정 위원

-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상 징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문제가 있으나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하다고 해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보조금법에 의해서 우리는 고발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수사 의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정 위원

-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고발은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경찰이나 검찰 등.

○이승정 위원

-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감사님의 권한일 것입니다.

○이승정 위원

- 왜냐 하면 작년 회의록을 보세요. 작년에 한국연극협회 등 정산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많은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정산을 해 달라고 했는데 끝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나둘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자체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는데 미정산과 부정수급은 다른 개념입니다. 부정수급은 배임이나 횡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수혜단체 쪽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진정을 낸 상황이 발생하면 부정수급이 되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지금 중요한 협약내용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다시 원래의 논의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숙 위원

- 저희 평가를 10개 정도 만들었나요? 평가 받는 것을 조금 축소시킬 방법은 없나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그것은 법정평가라고 해서 법이나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조기숙 위원

- 10개를 받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승정 위원

- 이 원안은 우리 예술위가 처음으로 문체부와 동등한 관계로 협약을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고요. 원안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원안 동의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머지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98쪽에 있는 문체부와 예술위가 '안정적으로'를 '안정·자율적으로' 바꾸고요. 99쪽의 '예술정책과장'을 '국장'으로 직급을 올려서 제안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결국은 문체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 쪽의 안을 의결하는 것이니까요. 6기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결안을 의결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여기까지 왔습니다. 6기 위원회가 문체부와 자율운영협약을 체결하기 직전까지 와 있고요. 위원님들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것은 5월 2일 일정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담이면서 협약체결 형태를 갖추는 것이죠?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 단계에서 모두 다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나종영 위원

- 별건 아닌데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 것도 봐야 합니다.

○나종영 위원

- 예를 들어서 ‘예술 표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술표현’이거든요. ‘헌법 정신’도 ‘헌법정신’이구요.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요.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해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을 지금 지적해 주세요.

○나종영 위원

- ‘예술표현’, ‘헌법정신’ 등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네요. ‘예술 분야’도 ‘예술분야’로 쓰는 게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다 받아 적으셨나요? 지적하신 내용을 전부 다 받아주세요. 이 협약서가 체결되면 영문으로도 만들거든요.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종영 위원

- 예를 들어서 ‘예술 현장’ 이라고 하면 통상 ‘예술현장’ 이거든요. ‘심의 절차’도 ‘심의절차’로 해 주시고요.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을 전부 다 정리해 주세요.

○이희경 위원

- ‘심의절차’는 ‘심의 절차’로 쓰는 걸로 나오는데요.

○강홍구 위원

- 그것은 잘 확인해서 하십시오.

○나종영 위원

- 맞춤법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보다 통상적인 용어, 예를 들어 ‘임기만료’ 이런 것들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위원 중에 시인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봉 위원

- 98쪽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할 (1)번 항에서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문체부와 공유하고”에서 ‘공유하고’를 ‘협의하고’ 로 바꾸면 안 됩니까?

○박종관 위원장

-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김기봉 위원

- 공유라고 하면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할 부분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그 중에 필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와 ‘협의’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협의’가 의미가 더 강하죠. ‘협의’로 바꾸죠.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97쪽을 보시면 “상호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속서로 정하고, 매년 점검을 통해 갱신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갱신할 내용이 있으면 계속해서 갱신해 나갈 수는 있는데요. 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히 더 논의를 하고 자세히 살펴봐야 하지만 논의를 종결해야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문체부와의 최종 협의과정이 남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최대한 강화되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없으시면 짚어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을 제가 정리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리한 것이 ‘안정·자율적’, ‘공유’를 ‘협의’로 바꾸고요. ‘예술정책과장’을 ‘국장’으로 바뀌어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국장은 직위고요. 국장의 직책은 예술정책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좋은 지적입니다. 문체부의 ‘예술정책관’으로 바뀌어서 수정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미처 의결하지 못한 제 737호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화 국제교류부장

-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총평 중에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의 총평이 빠져 있어서 별지로 나눠드렸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이희경 위원

- 이것은 그냥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악에서 보면 남북한 학자들이 같이 하는 게 있던데요. 만약 남북관계가 경색돼서 못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준화 국제교류부장

- 일반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통상 1개월 내에 포기를 하면 페널티가 없습니다. 남북관계의 의한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하는 방안입니다.

○이희경 위원

-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나갔고 대부분 하반기에 추진될 텐데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사업을 못 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냥.

○정준화 국제교류부장

- 말씀하신 문제는 어차피 교부신청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상황을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일단 돈을 내보내기 전에 확인을 하고 내보냅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뽕족한 것은 없습니다.

○최창주 위원

- 두 번째 장에 표현을 하셨네요. 저도 1985년도부터 직접 평양까지 갔다가 왔지만요. 그때 당시 통일부가 아니라 안기부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계획만 세워놓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충분히 검토하셨죠?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의결안 10개를 모두 마쳤고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정회)

(17시 34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겠습니다.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도 굉장히 여러 개인데요. 2019년도 소위원회 운영 지침에 관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회의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주요 사항입니다.  
기존 5개에서 10개로 확대해서 운영되고요. 그래서 소위 확산과 관련된 취지가 반영되었고요. 효율적 행정 지원을 위해서 소위원회별 1개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소위가 10개로 늘어나고 소위별 회의 개최 빈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소요경비가 급증해서 가용예산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당시키기 위해서 각 소위별로 쓸 수 있는 예산범위를 한정했고요. 특히 간담회를 수반하는 회의는 소위별 연간 2회 이내로 지침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각 소위별로 개최 빈도를 정했고요. 의견을 수렴해서 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회의수당과 교통보조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비와 간담회비는 저희 예산 과목 중에서 사업추진비로 집행이 되는데요. 사업추진비는 증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빠듯한 과목이라서 간담회비는 연간 2회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총량의 제한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것에 대해 약간의 논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운영비 총량의 제한을 받으니까 소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하고 활성화를 하면서도 예산범위를 지킬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승정 위원

- 이렇게 하시죠. 기준안을 마련했는데요. 현장소통소위원회에서 3,868만 원을 잡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술정책지원에서 1,618만 원이 있는데 예술위 차원에서 정책지원을 추가로 해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왔다가 할 수가 있어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산이 남으면 이 안에서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승정 위원

- 이 안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나종영 위원

-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의 위원장님이 안 계신데 월 2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희경 위원

- 워낙 하실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발표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그리고 현장소통은 3,868만 원인데요.

○이희경 위원

- 왜냐 하면 시작한 연 월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일단 현장소통은 1월부터 했고 이것은 3월부터 시작한 것이니까요.

○나종영 위원

- 제 생식으로 현장소통은 이해가 가는데요. 다른 데는 월 1회로 하면 통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를 남겨 놓았다가 일을 할 수 있는 소위들한테 주면 안 될까요?

○이희경 위원

- 성평등 소위원회는 오늘 보고를 보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미 책정된 예산을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제가 몇 개의 소위원회에 직접 가서 봤는데요. 소위원회 활동이 왕성한, 지금 현재로서는 소위원회 간에 편차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새롭게 구성된 소위원회가 다 같이 양질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건을 마련해 주지 못한 송구함이 위원장으로서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이 이러하니, 그리고 기초부장이 보고를 한 대로 목간 전용으로 이 안에서는 서로 상대방 소위원회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 수가 있다고 하니 이것을 일단 원칙으로 하고 추가 요인이 발생하면 조정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다음 보고안건은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드리면 최종안이 나오면 위원회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차분히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회의자료 105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일정을 표를 통해서 설명 드리면, 일단 작년 12월부터 1월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기사업계획을 편성했습니다. 중기사업계획이라는 것은 향후 5개년 간 국가재정규모를 판단하기 위해서 정부에 제출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각종 신규사업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고 중기사업계획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심의를 한 후에 내년도 예산편성의 1차 지출한도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통보한 내용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필요한 사업은 담고, 제출한도가 보통 전년 대비 5~10% 짝인 값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전년도 사업규모도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 외에 필요한 사업은 '지출한도 외'로 따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도 내외 한도 외의 값을 합쳐서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을 지난 주 월요일에 문체부에 제출을 했고요. 지난 주 화요일에 문체부 예산담당 부서인 재정담당관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안은 지난 주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했던 한도 내외 한도 외를 합친 사업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초안에 대해서 문체부는 4월 말까지 검토해서 제출한도를 새로 조정하게 되고요. 조정된 한도에 대해서 저희가 5월 중순경까지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게 되면

문체부는 5월 말까지 자체 심의를 통해서 장관님의 결재를 득하고 5월 말에 기재부에 문체부 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6월부터 8월까지 기재부가 1차에서 4차까지 심의를 통해서 부처(안)을 심의해서 확정하게 되고요. 8월 이후 9월까지 국무회의나 정부(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는 안은 지난 주 월요일에 저희가 문체부 재정담당관실에 제출했던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이 예술창작과 예술향유로 크게 구분이 된다면 여태까지 예산편성추이를 보면 창작 쪽 예산은 증액이 거의 미미했고, 복권기금에서 조달하는 향유 쪽 사업은 굉장히 많이 증액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향유보다는 예술창작지원에 비중을 늘리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술창작지원사업 안에서도 크게 문학과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으로 구분을 해서 보면, 그동안 공연예술 쪽은 신규사업이라든가 굵직굵직한 증액이 반영되어서 예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문학이나 시각예술 쪽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감액된 추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예술향유 쪽은 지금 규모를 유지하고 예술창작지원을 크게 발굴하고자 증액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술창작지원 안에서도 공연예술 쪽보다 문학이나 시각예술 쪽의 비중을 키우는 쪽으로 역점을 두었습니다.

106쪽의 세부사업별 주요한도 내역을 보시면 문학창작육성은 2019년도 29억 8,600만 원에서 내년도 64억 5,000만 원을 증액시킨 94억 3,6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요. 이 중에 우수문학도서지원사업은 국고에서 우리가 수탁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문예기금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55억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9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시각예술창작육성은 25억 6,000만 원에서 23억 4,500만 원을 증액시킨 49억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신규사업이 3개가 있는데요. 이 쪽에서 약 9억 정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연예술창작육성은 증액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문학창작이나 시각예술창작, 공연예술창작을 다 아울러서 예술창작지원이라는 세부사업에서 정해진 한도가 있습니다. 그 한도를 유지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문학이나 시각예술에 편성되고 남은 한도를 공연예술에 배정하다보니 늘릴 수가 없어서 금년대비 거의 동결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마찬 가지로 국제예술교류지원이나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아르코청년예술가지원 등도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남북문화예술교류지원은 남북 간 화해무드와 신규를 예상해서 금년대비 100%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원예술지원은 아르코혁신TF사업개선과제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다원예술 쪽의 신규분야를 새롭게 복원시켜서 하자는 현장의견이 많아서 신규사업으로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인력육성이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과 맞물려서 정부의 정책을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대비 10억 정도가 늘어난 152억 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크게 차세대예술인력육성과 현장예술인력육성 쪽으로 많은 증액 부분을 편성했고요. 나머지는 금년 대비 동결되는 수준입니다.

예술인생활안정자금은 전년과 똑같은 규모로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지원 쪽은, 지자체와 관계된 운영사업을 정부에서는 계속 지자체로 이양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더 이상 규모를 줄여서는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는 지자체의 의견도 있어서 동결로 유지했습니다.

저희 예술위원회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역할이, 만약 지자체로 이양이 되고 나면 결국 남은 것은 지역재단이나 지자체와 협력관계 그리고 연계되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소통구조를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문화협의체 등 운영사업을 9억 8,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발굴되는 우수공연을 중앙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우수공연활성화지원에 신규로 1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예술의관광자원화사업은 전체적인 지출한도 내에서 편성해서 금년대비 100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요. 감액된 대표적인 사유는 지역대표공연예술제지원 94억 원 정도가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으로 기재부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정책 및 기부활성화 사업은 홍보 쪽에 필요한 연차보고서 제작이나 기획 홍보 쪽의 증액소요를 반영해서 일부 증액을 시켰습니다.

문화예술기부활성화 쪽은 예술나무캠페인에 추가로 투입되는 12억 원과 문화예술후원 매개인력양성 사업을 반영해서 10억 정도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타 원로문예인복지지원이나 예술자료수집 및 디지털화 쪽은 일부 증액 또는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향유지원에서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되고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복권위원회가 편성하는 기준대로 전년 대비 단가 8만 원에서 9만 원 인상분과 지원대상 1만 명을 증가시킨 소요를 반영해서 편성했습니다.

신나는예술여행이나 방방곡곡문화공감은 전체 문화예술향유 지원 안의 지출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지출한도 통보를 받은 금액으로만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방향은 설명을 드렸고요. 각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증감내역이나 거기에 따른 설명은 별도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별도자료의 첫 번째 제목은 ‘기금운용계획 요구안 총괄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세부사업이나 내역사업별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보고를 받으신 대로 두께가 있는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요구안 총괄표’ 라고 표시되어 있는 별첨자료는 오늘 위원회가 끝나고 나서도 가지고 가서 보시고요. 2020년도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꾸준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결국 위

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고 문체부와 협의도 하며 국회 제출 전까지 여러 번 논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질문입니다.

107페이지 공연예술창작육성에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기록할 수 없는 이야기들 프로젝트’ 같은 경우 저만 모르는 건가요?

○박종관 위원장

- 설명을 해 주시죠.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이 사업은 아르코예술극장에서 기획공연입니다. 다른 문학시각 쪽과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블랙리스트사태 이후의.

○박종관 위원장

- 그게 핵심입니다. 블랙리스트를 극복하고 새로운 예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사업을 신청하고 내년도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희경 위원

- 조사위 권고사항이라고 한 것은 그런 의미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렇습니다. 공연이 중단되고 취소되고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기획공연을 자체적으로 마련한다는 뜻인가요?

○박종관 위원장시경

- 본부장님이 설명을 하시죠.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진상조사위의 권고사항이 맞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6억으로 담았는데요. 저희들 극장에서 관련된 부분이 2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 예술작품으로 승화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시와 문학도 같이 하려고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 메카시즘을 녹인 영화를 기억하실 텐데요. 다큐멘터리 식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기획하기 위한, 작품으로 승화시키려는 의도로 담았는데요. 문체부에서는 통합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블랙리스트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산업이나 영화진흥위원회 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더 큰 논의거리로 문체부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이게 6억이잖아요? 그러면 공연예술창작육성에서 전체적으로 3억이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그 얘기는 여기에서 6억이 편성된 것이면 어디에서는 예산이 더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모두 증가라고 되어 있길래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증감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보시면, 별첨자료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대비 비교표가 있습니다. 모든 세부사업의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어디가 증액되고 감액이 되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승정 위원

- 위원장님, 이것을 오늘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방대하고요. 저희들도 가서 공부하고 워크숍은 아니라도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좋은 제안입니다. 위원워크숍 등을 잡아 주십시오.

○이승정 위원

- 일정을 잡아서 참여가 가능하신 분만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의견을 끊임없이 주시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최대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초니까 이 정도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어떠실까 합니다. 이제 다음 보고사항은 소위원회와 관련된 보고사항입니다. 이것은 111쪽부터 130쪽까지 소위원회 활동보고입니다. 저희 전체위원회에서 공유해야 할 것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이것은 작년도 소위원회죠?

○나종영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올해 개최한 위원회인 것이죠. 처음 구성되어서 진행한 위원회도 있죠. 현장소통위원회도 지금 2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런데 예술정책지원소위는 11차라고 해서 작년에 했던 것을 연장?

○나중영 위원

- 1기는 끝나고 외부위원은 1명만 남았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시각예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시각예술부에서 대신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공유해야 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히 공유해야 할 것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정 위원

- 소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것들을 소위원회에서 담아내는데요. 나중에 언젠가는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서 제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내용에 대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요. 오늘 소위원회 위원장이 안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항상 회의록에 보면 소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읽어보고 위원회에 오기 전에 중요 안건은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도 당장 보고를 해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소위원회 운영계획에는 소위원회 전체를 한 군데에 모으는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소위원들이 한 테이블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장하는 전체 일들을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소통소위는 어떻습니까?

○김기봉 위원

- 저희는 올해 타 소위와 같이 연석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술적가치소위는 당장 다음 달에 레지던스사업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술가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들에 대한 부분들을 작년 1기 때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사회적가치소위와 같이 토론회를 하고 보도자료를 뿌리면서 그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업평가 소위원회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론화된 의제 중에 하나가 지정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지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이미 현장소통 소위원회에서 공론화가 이미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역문화협력 소위원회와도 지역현장을 같이 돌면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타 소위하고 협력하고 연대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 간의 연합활동도 굉장히 좋은 시너지효과를 낼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협력 소위원회는 이승정 위원님이 위원장님이신데 말씀해 주시죠.

○이승정 위원

- 지역대표들도 오셨는데 의제들을 많이 내셨습니다. 아까 김기봉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역도 한번 돌아보려고 했는데요. 저희 예술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외부에서 힘을 얻어야 할 사항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다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업평가 소위원회의 조기숙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조기숙 위원

- 저희는 특이사항은 없고 첫 만남이었는데요. 입장을 얘기하는 정도로 끝났는데요. 단 한 가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사업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환류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도 전년도 평가가 올해 결과에 반영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명료하지가 않아요. 언제 어느 대목에서 몇 %가 되었는지가 명료하지 않아서 차기년도 심의에 올해 평가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한 것을 논의해서 올리면 그것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이윤희 시각예술부장

- 일단 월 2회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논의되는 내용들은 저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성 비율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슈에 대해서 7월에 오픈테이블을 가질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남북 및 국제교류 소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정준화 국제교류부장

-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참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 남북 및 국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는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차 회의 때는 1차 때 보여드린 남북 및 국제사업 외에도 위원회 전반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셔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 한 분이 교체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의제 설정은 2차 회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는요?

○이희경 위원

- 저희가 수요일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희도 역시 구체적인 안은 2차 회의를 거치면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한국예술공론화의 최창주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최창주 위원

- 저희는 5월 13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조속히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새로 생긴 소위원회는 의제를 막 설정하는 단계고요. 첫 인사를 나눈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승정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이 계속 성숙돼서 전체위원회에 큰 보탬이 되고 현장 예술계로부터 크게 지지를 받는 위원회가 되는데 크게 공헌하고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 정도로 보고말씀을 듣기로 하고 나머지 보고안건이 1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르코 파트너' 예술가 추천 및 섭외 결과 보고에 대해서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자료 132쪽입니다.

예술현장 및 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목할 만한 작품을 선별해서 극장의 대표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품을 제작하고요. (2)번의 추진경과에 나와 있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운영자문위원회와 예술정책·지원소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파트너 예술가의 추천과 섭외순위를 결정할 외부전문가 후보를 추천 받았습니다.

아까 정책지원 소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반영해서 전문가들 2명을 추천 받았는데요. 섭외순위결정회의 8인과 함께 파트너 섭외 순위를 결정했구요. 133쪽을 보시면 6인의 예술가가 파트너 예술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134쪽을 보시면 붙임자료로 파트너 예술가 섭외순위 결정 내역이 있는데요. 이 순위에 따라서 정리를 했고, 일정이 안 되는 분은 후순위로 넘겨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35쪽 붙임자료를 보시면 선정된 파트너의 약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로 같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까?

○이승정 위원

- 이 분들한테 예산을 들여서 작품을 하나씩 할 수 있게 하나요?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 보시면 신작과 재연작으로 나뉘져 있는데요. 134쪽의 후보자 추천구분을 보시면 운영자문위원회, 지원정책소위 그리고 극장PD 등 추천순위고요. 그래서 어떤 것은 작품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좋은 작품인데 짧게 공연이 돼서 너무 아쉬웠던 공연들도 대학로예술극장에서 같이 공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과 함께 작품까지 추천을 받은 작품도 있습니다. 이런 재연과 신작 제작은 작품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술가들과 협의해서 알맞은 제작비용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승정 위원

- 아르크·대학로예술극장 운영자문위원회는 어떤 분들인가요?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서울연극협회, 한국무용협회, 극작가협회와 기타 장르에서 참여하시고요. 1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극분야는 사태를 하셔서 공석입니다. 그 다음에 조기숙 위원님께서 운영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주셨습니다.

○최창주 위원

- 보니까 전통문화 파트는 없어요. 공평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여기 추천 명단에 보시면 연극과 전통을 묶었고요. 무용과 다원을 묶었는데요. 추천되신 후보들의 프로필을 보시면 순위가 약간 뒤로 가 있지만 이자람 씨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작품들을 하고 있고요. 무용·다원 쪽에서 선정된 박순호 씨 같은 경우는 프로필을 보시면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북청사자의 탈과 연관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러지 마시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셔야 합니다.

○김기봉 위원

- 극장운영자문위원회 명단을 좀 주세요.

○박종관 위원장

- 자료를 준비해야죠.

○정영순 극장운영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정회)

(정회 중 위원 이석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산회)

(산회 후 간담회 개최)

